



2면

고향사랑 기부제 국민의견 수렴

2022년 5월 20일 금요일(음 4월 20일) 제3021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10번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내가 적임자”… 도내 지선 후보자들, 본격 세몰이



①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19일 남부시장 인근 도개비시장을 찾아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②조배숙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전주역 네거리에서 선거 출정식을 갖고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③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가 전주시 원산구 모악로 일대(평화동 꽃밭정이 시거리, 롯데시네마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④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연 뒤, 종합경기장 네거리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⑤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전주 종합경기장 네거리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도지사 후보들 공식 선거운동 첫 날

김관영 “경제가 살아나는 전북”

조배숙 “전북도민 성공시대 열자”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저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힘을 다졌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19일 남부시장 민생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첫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주 남부 시장 내 상가를 방문, 상인들과 도민들을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도지사 후보로서 노력하겠다”며 “선거운동 기간에도 꾸준히 민생 현장과 경제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북경제 살리기와 민생회복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김 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광역 및 14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개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본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11시 전라김영 정

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선대위 유세단 출정식에 참석해 관련 시황을 점검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민의 암도적인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힘을 다졌다.

이후 김 후보는 진안과 장수 무주에서 유세 활동을 벌이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전북, 민생 우선의 도정으로 더 큰 전북을 만들겠다”며 “선거운동 기간에서 들은 민생의 목소리를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주역광장(첫마중길)에서 하종대(전 체널A앵커) 조 배숙 선대위 총괄위원장과 당내 지역

후보자 및 당원, 지지자, 주민 등이 참석하는 6·1 지방선거 출정식을 열었다.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자’ 슬로건을 기자로 열리는 출정식은 선대위 구성 경과보고, 주요당직자 소개, 정운천 국회의원 지원유세, 김경민 전주 시장 후보 등 지역출마자 친조유세, 후보자 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 후보는 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전북의 낙후와 소외의 이유는 수십년 간 계속된 일당 독점 정치의 폐해”라며 “이제는 전북도민이 혁명한 선택을 통해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하종대 총괄선대위원장은 청조연설에서 “얼마 전 중앙 정권교체를 했다. 이번에는 지방정권을 교체할 때이다. 민주당 수십년 지방정부에게 물표를 준 결과는 전북의 GDP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힘있는 도지사로 지방 정부를 바꿔야 한다”며 “조배숙 후보는 운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시절부터 40년 지기이다. 전화 한통면 언제든지 대통령과 상의할 수 있다. 전북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인물”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출정식을 마친 뒤 조 후보는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공식선거 첫 유세를 벌였다. /유호상 기자

교육감 후보들, 유세단 출정식 갖고 유세 나서

김윤태 “정책선거로 평가받을 터”

서거석 “전북교육 희망 대전환”

천호성 “전북교육 세대교체 선언”

전북교육감 후보들이 유세단 출정식을 갖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김윤태 교육감 후보(전 이재명 실크밸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는 19일 오전 11시 전주시 원산구 모악로 일대(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롯데시네마 앞)에서 학생행복캠프 유세단 출범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신분대 물림 부모찬스를 공교육 찬스로 극복, ▲사교육비 대폭절감 ▲전북형 과학인재교육인성 및 과학중접고 신설 ▲상상하고 정원 50% 전북출신 선발 ▲기초화력신장을 위한 초등생 기본학력 전담교사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출정식을 통해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정책선거로 학생들과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 후보도 이날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한 유세단 출정식과 함께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서 후보는 유권자들을 통해 “교육에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다. 선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쟁과 선택”이라며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서거석과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한편 출정식에 이어 오후에는 익산 북부시장 사거리, 영등포구 전자랜드 사거리, 군산 나운동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펼쳤다.

서거석 후보의 대표공약은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실혁명 ▲학생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공교육 강화 ▲적정규

모 학교 운영 ▲공·사립간 차별 해소 ▲에듀페이 지금 ▲교육청과 지자체간 공동 커버리스 운영 등이다.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천호성 교육감 후보는 이날 아침 7시 30분 전주공설 운동장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유세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12시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유세단 출정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천호성 후보는 전북교육 세대교체를 선언하며, 전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장교육 전문가인 천호성을 교육감으로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천호성 후보의 선거가 아니며 전북 200여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지지해 준 12만 도민이 함께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부탁했다.

한편 천 후보는 출범식 이후 선거캠프에서 전북교사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부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녀온 후 저녁에는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리는 기독교문화선포대회에 참석했다.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투표로 밝히는 온 동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
일자: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투표인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nec.go.kr)에서 확인 가능

사전투표
일자: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선거 알아보기!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

- 지방자치 단체장
- 시·도지사 선거
- 구·시·군의장 선거
- 지방의원
- 시·도 의원선거 (지역구)
- 구·시·군 의원선거 (지역구)
- 시·도 의원선거 (비례대표)
-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 지방 교육자치
- 교육감선거

※ 투표 시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교육감선거 더 알아보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순서가 바뀝니다.

투표소 가기 전, 정책·공약 확인하기!

-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방문
- 선거방송토론회 주관의 후보자토론회 시청

투표소 갈 때 꼭챙기기!

신분증과 마스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어린,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많은 인력·장비, 시설이 일시에 동원되어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 참여하는 유권자 그리고 정당·후보자까지 모두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 선거사무 필요 인력: 사전투표 약 10만 명, 선거일 투표 약 19만 명, 개표 약 9만 명
* 선거사무 필요 사설: 사전투표소 약 3,500 개소, 투표소 약 14,500 개소, 개표소 약 260 개소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